

닛신보(Nisshinbo)

- 면 100%의 스트레치성 등 기능성 상품 중요시

닛신보는 유니폼 분야가 더욱 세그먼트화 되는데 따라 기능성과 품질에 정성을 쏟은 텍스타일 기획 소재를 내놓고 있다.

유니폼과(課)에서는 ‘직종에 따라 스트레치성에 대한 요구 정도가 다르다’고 보고 워킹(working)이나 백의(白衣) 등의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제안하고 있다. 쾌적한 착용감에 따라 용도를 달리하는 소재군(素材群) ‘착용감 연구’에서도 면 100%이면서도 제직이나 가공으로 스트레치성에 차이가 있는 상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환경의 요구에 잘 대응한 대형상재(大形商材)가 될 것 같다’고 기대를 걸고 있는 바나나 섬유를 사용한 상품화도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

2007년 3월기(期)의 거래상황은 수량으로는 2006년 실적을 웃돌고 있으나 이익면에서는 제조코스트가 크게 올라 고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2007년에는 춘하절부터 값을 올렸는데 외환율(外換率) 등의 외부요인으로 헛일이 되었다. 앞으로는 ‘어패럴에 대하여 자신을 갖고 판매할 수 있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다양화되는 니즈(needs)에 대응하겠다. ♣